

신세대 관련 서적 봇물

신세대 자화상 찾기 본격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신세대군'에 대한 논의가 이전의 세대 논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세대들의 반비판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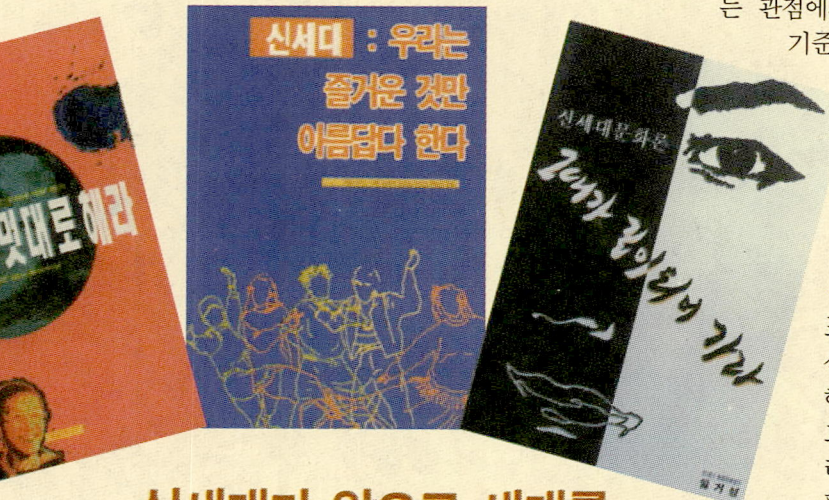
사실 지금까지 신세대 논쟁은 기성 세대의 일방적인 매도로 채워져 왔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하는 나약한 철부지', '고생을 모르는 냉소적인 영상세대', '빈둥거리고 불평만 하는 세대'. 이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사회문제로 회자될 즈음, 세대 논쟁은 여론재판에 의해 신세대의 패배로 막을 내릴 듯 했다. 하지만 '신세대'는 오히려 스스로를 'X 세대'로 격상시키면서 도전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와 이미지 생산으로 거대한 소비자군을 만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실세'를 넘보기에 이르고 있다.

각 대학에서 신세대에 주목하여 '자화상 그리기'를 시작할 무렵, 도전을 공식화한 최초의 시도는 일명 '운동권 신세대'로 불리는 미메시스 그룹의 선전포고였다.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현실문화연구 펴냄)를 통해서 그들은 '표현하지 않는 감성에 대한 증오'를 외치며 '신세대의 사회적 파워와 감성

적인 열정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또 '더 이상 탄원은 없다. 돌과하라'며 기성세대에게 대해 반역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들의 신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표명에 대해 논리의 비약과 걸러지지 않은 성급한 결론 내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대 문화연구의 차원에서 기획된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는 사회과학 서적의 퇴조기에 드물게 재판을 발행해 그들 스스로도 '반항아'들이 많은 데 놀라고 있다.

반면 현실문화연구팀의 문화연구 시리즈 중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는 신세대론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임으로 전략하고 신세대 논의가 굴절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멀티 미디어 혹은 구경거리 사회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된 이미지들이 이 땅의 지식인들을 구경꾼 혹은 이미지의 소비자로서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속에서 '규격화된 지식에 대한 해체'와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된 말씀(예를 들면 페미니즘, 공간, 주



신세대가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주체임이 분명하다면 이들에 대해 '모방의 세대' '있는 것들의 짜깁기'라는 평가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담론으로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변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진정성'을 찾아 개방적인 텍스트로 활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문화연구팀의 김진송(36)씨는 문화연구 시리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필요에 의해 재생산되는 양분된 문화연구 구조가 담아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읽기와 글쓰기가 시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3문화사에서 펴낸 <신세대: 우리는 즐거운 것만 아름답다 한다>와 일거성

출판사에서 나온 <신세대 문화론>은 신세대 감성을 신세대의 입을 통한 직접 서술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색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세대의 '이론적 전사'로 자처하고 나선 자포니쿠스 동인들이 엮은 <신세대: 우리는 즐거운 것만 아름답다 한다>는 예술을 반복과 훈련이 좌우하는 스포츠의 행위에 대해, 인간이 만든 제2의 자연인 컴퓨터 통신이나 기계 문명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삶의 축제라

는 관점에서 신세대의 미적 기준, 사랑을 보는 관점, 종교, 예술, 부정의에 대한 싸움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신한 의도나 설득력 있는 자기 표현은 좋으나 자신감과 의욕에 비해 대안이 미흡하고, 일관적인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세대 문화론>은 신세대가 감각 세대, 소비 세대, 쾌락 세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신세대는 나이·계층·직업을 초월해 '새로운 감성을 소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질서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세대'이며, 기존의 사회질서나 규범-결혼, 이혼, 대학, 성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현실적응을 실천하는 세대다. 집필을 맡은 이들도 노동자에서부터 대학생, 고등학생, 측량기사, 배낭여행가, 카레이서, 농민약국 사람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간 대학생 중심의 신세대 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상권으로 출간된 <신세대 문화론>은 앞으로 내용을 보강해 9권으로 재출간될 예정이다.

신세대 논쟁이 뜨거운 또 하나의 분야는 여성지 시장이다. '펠', '워크' 등 자기투자에 인색하지 않고 자기표현에 솔직한 신세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지가 속속 발간돼 기존의 여성지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오는 8월 창간 예정인 '이브'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남희 편집장은 "기존의 이동성이 없는 여성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등과 결합해 신세대 여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세대 논쟁의 2막은 신세대들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비해 소위 기성세대나 비신세대(?)들의 반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신세대들의 솔직함에 주목해 우리 사회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것일까. 아무튼 앞으로의 사회적 불협화음은 경제적 맥락보다 문화적 혹은 세대간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대간의 활발한 문화읽기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세대가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주체임이 분명하다면 이들을 특정지우는 '모방의 세대', '있는 것들의 짜깁기'라는 평가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담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손정미·자유기고가>

신세대 모임-미메시스, 자포니쿠스, 푸른물결

신세대 문화 우리가 이끈다

90년대 문화비평의 새로운 논거의 틀로 제시되고 있는 신세대 문화론을 이끄는 신세대 창작비평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본격적인 신세대 문화비평서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로 알려지기 시작한 미메시스를 비롯해 현재 활동 중인 신세대 모임들은 자포니쿠스, 푸른물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구성된 미메시스는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를 통해 대학이나 문화비평계에 신세대 논쟁을 촉발시킨 주인공들이다. 컴퓨터와 TV, 비디오 등 영상매체를 통해 사회를 접해온 신세대들의 감성에 맞는 교양서를 만들기 위해 5명의 필자들이 모여 모임

을 구성했다.

노래운동을 했던 이성호 씨를 비롯해 현재 10여명으로 구성된 미메시스는 앞으로 영화, 음악, 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창작물을 낼 예정이다. 주상우(29)씨가 영화 <아름다운 날들>의 시나리오와 영화 비평서 <활자없는 인쇄술의 미로>를 집필 중이며, 이성호 씨는 앨범 작업을, 정소희(29) 씨는 프랑스 유학을 수필로 담는다. 또한 이들은 오는 9, 10월에 열릴 <제1회 신춘 뮤직 페스티벌>의 기획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모임이다.

미메시스의 구성원이었던 송재희(31)씨가 신동운, 박인선, 하승주 씨 등과 새롭게 구성된 자포니쿠스(배짱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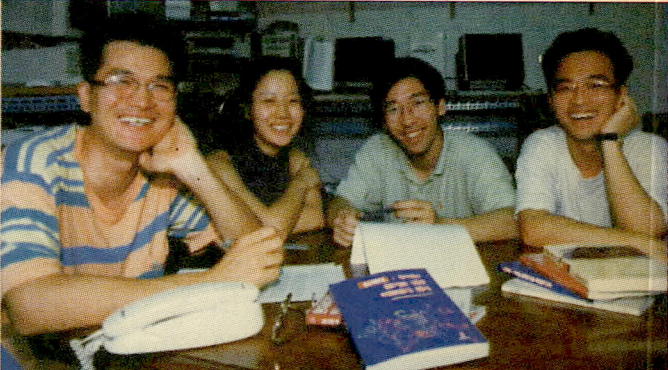


<신세대:네 멋대로 해라> 출간이후 영화 및 앨범제작, 수필 출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메시스 동인들

학명)는 얼마전 <신세대: 우리는 즐거운 것만 아름답다 한다>를 펴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미메시스와 마찬가지로 창작비평모임인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하지 않

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전제한 뒤 신세대를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세대로 겸손과 도덕적 의무보다는 자신감과 도전의 의욕으로 가득차 있으며,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



신세대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중시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성 복원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포니쿠스 동인들

하고자 하며 논리보다는 이미지로 다가가려 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한편 자포니쿠스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 복원을 꾀한다. 신세대의 개인주의가 자신과 가족만을 중시하는 '부메랑 세대'로서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에서 대의를 위해 가족을 희생했던 계백이나 조선의 을바른 성리학 전통과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앞으로 발간될 책 <어머니와 창녀>는 영화를 텍스트로 우리의 지하 여장군과 서양의 마리 아로 대별되어지는 여성상 등

을 분석하는 영화비평서이다. 이외에도 송재희 씨가 강간과 구타 등 남성들의 폭력에 반기를 든 여성들의 승리를 담은 <6천년만의 반란>(가제)의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다.

신세대를 '일하는 신세대들의 신사고'라고 정의하는 노래모임 푸른물결은 그동안 공단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래운동을 펼쳐왔던 노래운동 진영의 신세대들이다. 대학의 노래 동아리 출신들이 이들은 지난 5월 28, 29일 동국대에서 '일하는 신세대'를 주제로 한 콘서트 <자! 우리 가 불까>를 공연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남미경 기자>